

# 글로벌 규칙 개정

**2024년 7월 1일**

(이후의 새로운 대회/리그 시작의 경우)



규칙 개정 – 2024년 7월 1일  
크록 롤 금지



# 크록 롤(CROC ROLLS)

## 규칙 개정의 이유:

- 2024년 3월 Shape of the Game 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 - 선수보호를 위해 크록 롤은 경기에서 금지되어야 한다.
- 도착하는 선수가 재클러의 등/하반신에 대한 하강 동작 후 돌면서 넘어지는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.

이 규칙 개정은 선수들이 크록 롤을 사용하는 대신 계속 서 있으면서 재클러를 밀고 나가도록 장려한다.



GSI Performance & WR Tackle 컨설턴트인 Richie Gray에게 감사드립니다.



# 크록 롤

크록 롤의 정의 :

크로커다일 롤(Crocodile roll): 태클에서 두 발로 서있는 선수를 옆으로 구르거나 비틀거나 당겨서 지면으로 끌어내리는 금지된 행동이다. 이러한 행위는 종종 선수의 다리에 착지하게 된다.

우리가 때때로 보는 것 :

- a. 비트는 동작 - 재클러 몸에 감거나 돌리거나 비틀어서 넘어지면서 재클러의 다리에 무게를 실음
- b. 당기는 동작 - 재클러를 잡아당겨서 재클러의 다리나 그 주변에 무게를 실음; 재클러의 머리/목 또는 주변을 당김; 또는 재클러를 앞으로 당겨 머리/목을 지면 방향으로 끌어내림

**"Drive not dive"(넘어지지 말고 밀고나가라)가 중요한 전달 메시지이다.**

플레이어가 뒤로 밀려나서 땅에 넘어지면 그 자체로는 크록 롤이 아니다.



권장되는 좋은 예시



# 크록 롤

## 규칙 문구

**정의:** 크록 롤: 태클 지역에 두 발로 서있는 선수를 옆으로 굴리거나 비틀거나 잡아당겨 땅으로 내리는 금지된 행위이다. 이러한 행위는 종종 선수의 다리에 착지하게 된다.

### Law 9.20d & e (러크/몰에서의 위험한 행위)

d. 선수는 태클 지역에서 재클러를 밀거나 드라이브하여(무릎/다리를 잡는 것 포함) 끌어내릴 수 있지만, 상대편을 굴리거나 당기거나 비틀어서는 안된다.

e. 선수는 상대에게 체중을 실어서는 안되며, 다리를 목표로 공격해서는 안된다.  
(벌칙: 페널티)

### 규칙 14.8의 새 조항 (태클 규칙). 다른 플레이어는:

e: 태클에 참가하는 상대 선수를 굴리거나, 당기거나, 비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는다.



# 크록 롤

## 벌칙수준

**파울플레이** - 태클에 도착하는 선수가 최초 컨택 지점을 넘어 재클러를 앞으로 당기거나 굴린다(팔다리 위에 넘어지거나 과신전 될 위험이 있음).  
머리 부위 접촉 관련 프로세스와 유사하게, 벌칙 수준은 행동의 위험 수준 및 하체 근접 정도로 정해진다.

**PK or YC** - 다리 근처 또는 다리 위에 떨어지는 크록 롤 - 위험도 낮음/중간



**RC** - 크록 롤을 하면서 다리 부위에 떨어지거나 다리가 과신전 되는 현상을 유발 - 위험도 높음



규칙 개정 - 2024년 7월 1일  
프리킥에서 스크럼 옵션  
제외



# 프리킥에서 스크럼 제외 규칙 문구

규칙 개정의 이유: 기술적 반칙 후 여러 번의 스크럼 재설정을 피할 수 있어 경기 진행을 빠르게 함

규칙 20조: 페널티킥 또는 프리킥에서의 옵션

20.3 팀에 페널티 ~~또는 프리킥~~이 주어진 경우 그 대신 스크럼을 선택할 수도 있다.

20.4 a. 라인아웃에서 팀에 페널티 ~~또는 프리킥~~이 주어진 경우 같은 마크에서 라인아웃이나 스크럼을 선택할 수도 있다.

b. 라인아웃에서 프리킥을 얻은 팀은 그 대신 같은 마크에서 라인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.

연계된 규칙 개정: 마크 규칙

17.6 플레이어가 마크(Mark!)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, 1분 이내에 프리킥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, 팀 동료가 프리킥을 진행할 수 있다.



## 프리킥에서 스크럼 제외 적용에 관련된 질문

스크럼이 약한 쪽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?

- 심판은 이러한 상황을 강력하게 관리/제재한다.
- 경기 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페널티 킥 반칙이다(9.7a).
- 반복적인 위반은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페널티 킥으로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다.

퀵 탭

- 규칙 변경 후 스크럼에서 더 많은 퀵 탭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퀵 탭은 스크럼 뒤(8번 포지션 주변)에서 진행해야 한다.
- 10m 내의 수비 선수는 10m 밖으로 물러나야 한다.



규칙 개정 – 2024년 7월 1일  
킥 전방의 오프사이드



# 킥 전방의 오프사이드 규칙 문구

규칙 개정의 이유: 오프사이드 지역에서 머무르는(loitering) 행위를 줄여 선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.

규칙 10.1: 오픈 플레이에서 볼을 가지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볼을 플레이한 팀 동료보다 앞에 있는 선수는 오프사이드이다. 오프사이드 선수는 플레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.

- a. 볼을 플레이 하는 것.
- b. 볼을 가진 선수를 태클하는 것.
- c. 상대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.
- d.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머물러있는(loitering) 것

규칙 10.4 오프사이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.

- a. 물러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경기를 방해하는 경우
- b. 볼을 향해 **앞으로** 이동하는 경우

규칙 10.7 규칙 10.4c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오프사이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온사이드가 될 수 있다.

- a. 해당 선수의 온사이드인 팀 동료가 오프사이드 선수를 지나가고, 그 동료 선수가 플레이 에어 리어 안에 있거나 다시 들어온 경우.
- b. 해당 선수의 상대팀 선수가:

• **볼을 가지고 5미터를 이동; 또는**

**2.2. 볼을 패스하거나;**

i. 볼을 차거나;

ii. 볼을 의도적으로 터치하지만 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.



# 킥 전방의 오프사이드

## 적용에 관련된 질문

킥한 볼을 받는 선수가 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도적으로 손이나 발로 볼을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?

- 킥을 찬 선수보다 앞에 있던 선수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고 있어야 한다.
- 볼이 플레이(캐치를 시도/발로 트래핑)되는 경우, 오프사이드 선수는 상대 선수가 볼을 건드린 직후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.
  - 이는 규칙 10.7b ii. "의도적으로 플레이하지만 볼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경우"의 정의를 충족한다.
  - 이것은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들이 볼이 착지하는 지점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. 해당 선수들이 10m 이내에 있는 경우 규칙 10.4c가 적용된다.

팀 동료들 온사이드로 만들어 줄 선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 i.e. 킥을 차는 선수가 서포트 없이 정당하게 태클당했을 경우

- 킥을 찬 선수보다 앞에 있는 모든 선수는 온사이드가 될 때까지 물러나야 한다(비디오 참조).
- 지도자/팀은 수비하는 동안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(50:22에 대해 수비하는 것과 유사하게 공간을 커버 할 추가 인원 배치 등).



# 킥 전방의 오프사이드

## 적용에 관련된 질문

볼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- 킥 앞에 있던 선수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?

- 볼이 계속 살아 있다면 (예를 들어 퀵 스로인으로 진행된다면)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들은 계속해서 물러나야 하고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.
- 심판이 휘슬을 불거나 AR이 팔을 들어 라인아웃이 진행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행위는 볼이 죽었음(dead)을 의미하고 선수들은 라인오브터치로 이동할 수 있다(이것은 2012년 규칙 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제이다).

물러나는 것(retreat)은 무엇인가?

-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온사이드인 팀 동료들의 방향으로 걸거나, 조깅하거나, 달려서 움직여야 한다.



# 감사합니다.

[international@rugby.or.kr](mailto:international@rugby.or.kr)

